



나성범 "석민이 형 최고" NC 박석민(오른쪽)이 23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KIA와 홈경기 4회말 2사 1·2루서 시즌 25호 3점홈런을 터뜨리고 나성범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3회에도 솔로홈런을 터뜨린 박석민은 개인 통산 12번째 연타석홈런을 기록했다.

## ‘만루홈런’ 테임즈, 3년연속 100타점

KIA전 4타점 추가로 103타점 기록 역대 6번째... “출루해준 선수 덕분”



‘타율 3할·30홈런·100타점’은 타자들의 꿈이다. 정교함, 파워, 클러치능력까지 중심타자라면 가져야할 3박자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NC 에릭 테임즈(30·사자)는 KBO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라 할만하다.

테임즈는 23일 마산 KIA전 3회 2사 만루서 상대 선발 김윤홍의 시속 132km짜리 슬라이더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0-0으로 팽팽하게 흘러가던 경기흐름을 단번에 NC로 가져오는 그랜드슬램(개인 6호, 시즌 42호, 통산 755호)을 쏘아 올렸다. 이 만루홈런으로 4타점(103타점)을 추가하며 역대 6번째로 3년 연속 100타점을 달성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대구 삼성전 2-8로 뒤진 6회 무사 1·3루서 시즌 30홈런을 때려냈다. 역대 5번째로 3년 연속 30홈런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여기에 3년 연속 타율 3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4년 타율 0.343, 2015년 타율 0.381이라는 고타율을 기록했다. 올해도 23일까지 101경기에서

타율 0.335를 올리고 있다.

테임즈의 장점은 꾸준함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지난해 KBO리그 MVP다. 위협적인 타자를 향한 상대팀의 경계는 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견제는 늘 있어왔다. 나는 내가 할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의치 않았다. 물론 말은 담담하게 했지만 속으로는 독기를 품었다. 안타 3개를 쳐도 불만족스러우면 경기가 끝나고도 추가로 훈련을 하고 귀가해야 직성이 풀렸다. 팀을 생각하는 마음도 크다. 그는 경기 후 “기록을 달성해 무척 기분 좋다”고 기뻐했지만 “3년 연속 100타점은 내 앞에 주자들이 많이 나가줘서 얻을 수 있는 기록이다. 열심히 출루해준 타자들에게 고맙다”고 공을 돌렸다.

마산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 이승엽 1389타점...또 하나의 전설 썼다

(KBO 역대 최다)

SK전 1타점 추가...양준혁과 나란히 일본서 뽐낸 8년의 공백 딛고 대기록

양준혁 MBC스포츠+ 해설위원은 2010년 삼성에서 은퇴했다. 유니폼을 벗는 순간 양 위원은 최다안타와 홈런, 타점까지 모두 통산 1위에 올라있었다. 2012년 이승엽이 KBO리그로 돌아오자 양 위원은 오랜 시간 한 팀에서 뛰었던 이승엽에 대해 “홈런과 타점 기록은 이승엽이 무조건 다 깰 것”이라고 말했다.

홈런은 2013년에 깨졌다. 그리고 2016년 이승엽은 타점 부문에서 양 위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 하나 대기록 탄생이 바로 눈앞에 왔다.

23일 대구 라이온즈파크. 많은 관심이 이승엽의 한일 통산 600홈런에 쏠려 있었다. 특히 이승엽은 2013년 6월 20일 문학구장에서 SK 윤희상을 상대로 KBO리그 통산 352호 홈런을 때렸다. 양준혁의 351호를 뛰어넘는 통산



삼성 이승엽이 2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K와 홈경기 4회말 2사 1·2루서 1타점 중 적시타를 날리며 통산 1389타점으로 역대 최다 타점 타이틀을 기록했다.

홈런 신기록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SK 선발은 윤희상이었다. 3년 전 홈런 기록 순간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승엽은 “홈런보다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심타자로 팀 승리를 이끄는 가장 큰 공헌은 홈런도 중요하지만 역시 타점이다. 이승엽은 이날 경기 전까지 1388타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양준혁의 1389타점에 단 1개 차 뒤진 기록이

었다.

2회 중견수 플라이, 3회 삼진을 당한 이승엽은 4회 2사 1·2루 타석에 섰다. 볼카운트 1B-2S, 불리한 상황, 윤희상은 131km 포크볼로 이승엽에게 삼진을 노렸다. 그러나 정확한 타격으로 공을 때렸고 중견수 앞 안타로 2루 주자 박한이가 홈을 밟았다.

이승엽이 통산 1389타점으로 KBO리그 통산타점 타이틀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양준혁은 18시즌 2135경기만에 1389타점을 올렸다. 이승엽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 일본에서 뽐낸 8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KBO리그에서 14시즌 2135경기에서 같은 숫자의 타점을 기록했다.

역대 타점 기록 1~10위 중 현역 선수는 이승엽을 제외하고 3명이 있다. 3위와 5위 이호준(40·NC)과 홍성흔(39·두산)이 각각 1210점, 1120점으로 3~4위다. 한화 김태균(34)은 1113타점을 기록하며 역대 6위에 올라갔다.

대구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불펜 강화’ 위해 사이드암 2명 택한 두산

박치국·최동현 신인 1순위로 선택

두산이 1차 신인우선지명에 이어 2차 지명회의에서도 ‘우완 사이드암’을 가장 먼저 호명했다. 두산은 22일 열린 2017 신인드래프트에서 사이드암 투수 박치국(18·제물포고)을 1순위로 낙점, 1차 우선지명에서 뽑은 동국대 투수 최동현(22)과 함께 2명의 사이드암 투수를 신인 1순위로 선택했다.

마운드 보강을 위해 투수 유망주들을 확보한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드암’이라는 특성을 가진 투수 2명을 연달아 선택한 점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에 대해 두산 스카우트팀이 내놓은 배경은 ‘불펜 강화’였다.

두산 윤혁 스카우트 부장은 22일 신인드래프트 직후 “선발진이 나름 안정된 상황에서 불펜진을 두껍게 하는 것이 이번 드래프트의 1차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두 외국인투수 더스턴 니퍼트~마이클 보우덴과 장원준~유희관으로 이어지는 선발 로테이션은 현재 손발 곳이 없다는 판단 하에 보다 문제가 시급한 불펜진에 눈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축투수들의 군 입대 문제도 고려대

상이었다. 윤 부장은 “5선발 허준혁과 필승조 윤명준이 올 시즌이 끝나면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들이 빠지면 선발 마운드와 불펜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민 끝에 선택한 박치국은 ‘싸움닭 기질’로 정평이 나왔다. 신체조건은 176cm·80kg으로 왜소한 편이지만 마운드 위에선 최고구속 145km의 직구와 120km대 중반 슬라이더로 배짱 있는 투구를 선보인다. 최고 장점으로 꼽히는 견제능력은 고교무대 최고 수준이다. 1루 견제를 한 경기에 2~3개씩 거뜬히 잡아내는 손발력은 1군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는 게 스카우트팀의 설명이다.

박치국의 각오도 남다르다. 박치국은 “선발 욕심은 없다. 그러나 꼭 팀의 마무리를 맡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고등학생다운 모습도 엿보였다. 박치국은 “키가 작은 편이다. 20대가 돼도 키가 자란다는 말이 있던데 앞으로 몇 cm라도 컸으면 좋겠다”며 수줍게 웃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제12회 동아 홈 & 리빙페어**  
The 12th Dong-A Home & Living FAIR

**제9회 동아 기프트쇼**  
The 9th Dong-A Gift Show

**제7회 동아 차·공예 박람회**  
The 7th Dong-A Tea & Craft FAIR

전시품목

- 〈홈&리빙페어〉가전 / 주방용품 / 욕실용품 / 홈 인테리어 / 가정용품
- 〈기프트쇼〉 판촉용품 및 선물용품 / 아이디어 및 디자인상품 / 뷰티용품 / 패션 및 액세서리 문구 및 사무용품 / IT 및 스마트폰 관련기기
- 〈차·공예〉 차(茶) / 도기 및 다기류 / 차(茶) 관련 공예품 / 핸드메이드·DIY / 기타 공예품

◆기간 : 8. 25(목) ~ 8. 28(일)

◆주최 : 동아전람

**제8회 동아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  
The 8th Dong-A Sports & Leisure Industry EXPO

전시품목

- 〈스포츠 레저용품〉 헬스·휘트니스 / 아웃도어용품 / 등산 및 캠핑용품 / 레저차량·용품 / 자전거 / 구기 스포츠용품 / 드론·RC용품 / 익스트림·레저스포츠 / 골프장비·용품 / 운동장 및 생활체육시설 / 기타 스포츠 용품

◆장소 : KINTEX (제1전시장)

◆관람시간 : 오전10시 ~ 오후6시 (토·일요일도 동일)